



경희대학교

##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0일(일) 오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비교적 오랜 정당 정치의 역사를 갖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사한 특성의 정당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당 구성의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자당 등은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당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각국의 정당체계의 구성이 다르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유사성과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립셋과 록칸은 균열(cleavage)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정당체계의 등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국가 공동체 내 균열 체계의 기원과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토대로 립셋과 록칸은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네 가지 균열의 형태를 제시했다. 이들이 주목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다. 국민혁명은 두 가지 균열을 초래했다. 하나는 중심부 대 주변부 간의 균열이었다. 국민국가의 성장은 영토 내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통일화와 표준화를 진전시키게 되어 그만큼 지방에 존재해 온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혁명에 의해 초래된 또 다른 균열은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었다. 국민국가 건설 이전까지 유럽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교회가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치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등장은 영토 내에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는 국왕이라는 세속적 권위, 세속적 권력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점차 증대된 부의 배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두 가지 균열을 만들어 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해를 둘러싼 균열이었다.

[나]

범죄와 처벌은 모든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의례의 기본적인 일부다. 의례란 집단이 수행하는 표준화된 의식적 행동임을 되새겨 보라. 여기에는 공통의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의례를 통해 사람들을 집단에 더 단단히 묶어놓는 상징적인 믿음이 만들어진다. ‘범죄-처벌’ 의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법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사회 구성원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는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 낸다. 범죄자는 이렇게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기계에 꼭 필요한 원료이지 그 기계의 혜택을 나눠 가지는 수혜자가 아니다. 범죄가 없다면 처벌 의례도 없을 것이다. 범죄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통으로 분노를 느낄 때 생겨나는 도덕 감정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다. 범죄와 처벌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사회를 묶어 주는 유대감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다]

영화 <설국 열차>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각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후 조절 물질을 살포하였는데 그 물질 때문에 지구에 빙하기가 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설국 열차 안뿐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탑승한 이 열차는 계급에 따라 객실이 나누어져 있어 앞쪽으로 갈수록 상류층이, 뒤쪽으로 갈수록 하류층이 생활하고 있다. 이 열차는 17년째 달리고 있는데 꼬리 칸에 타고 있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꼬리 칸 사람들과 함께 상류층이 탄 앞쪽 칸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 뒷면에 계속 >

<설국 열차>는 지배 계급이 만든 구조 속에서 사는 피지배 계급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 피지배 계급은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 계급이 정한 구조 속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백질 블록만 먹으며 앞쪽 칸 사람들의 횡포를 그대로 받고 살아간다. 결국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라]

미국의 한 경제 정책 연구소가 미국의 매출 기준 350대 기업 CEO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올해 평균 1,550만 달러(약 17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봉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4.5%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2.2% 인상되었다. 이렇게 역할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 능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즉,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으며 각각의 일은 적절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보수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한다.

[마]

사회적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상과 정서와 관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인간성과 개인차의 중요성, 권리와 의무, 사회, 개인, 진보,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동질적인 국민정신의 기초가 되고 있다. 부유한 자의 교육이든, 가난한 자의 교육이든, 전문 직업 교육이든, 산업 기술 교육이든 상관없이 모든 교육은 위와 같은 공통 요소를 아동에게 심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집단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일성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영속시키고 동시에 강화한다.

[바]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는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할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졌다. 활판 운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펜트 운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을 사적으로 독점한 세력, 투기를 일삼는 세력, 분별없이 금융 자산을 굴리는 관행, 사익을 추구하는 계급적 파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자기 사업을 지원하는 한낱 조력자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본 위에 세워진 정부는 조직 폭력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언젠는 싸울 것이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1997년 IMF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반지, 돌반지 등의 금붙이를 든 사람이 은행마다 줄을 섰다. 지역·계층을 넘어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금했고, 이 금으로 나라의 빚을 갚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 다음 면에 계속 >

[자]

인간은 첫째, 이득을 위해 침략하고, 둘째, 안전을 바라는 공격하고, 셋째, 공명심 때문에 명예 수호를 위해 공격자가 된다. 또한 인간은 첫째, 타인과 가족, 가족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둘째,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셋째, 한 마디 말, 한 번의 웃음, 의견 차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친척, 벗, 민족, 직업, 가문을 얹잡아 보는 사소한 표현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

[논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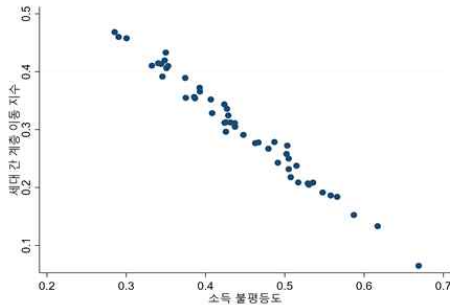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논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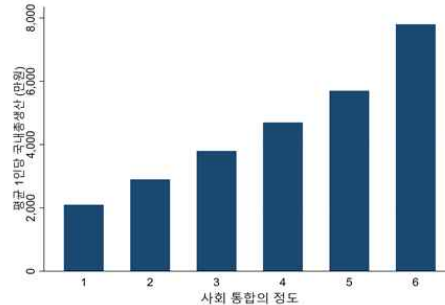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III]

<자료 1>은 각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조사한 후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계층 이동 지수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은 사회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료 2>는 국가들을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회 통합의 정도가 1에서 6으로 커질수록 더 통합적인 국가다.



<자료 1>



<자료 2>

- (1)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각의 자료가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 (2) 사회평등지수  $x$ 와 사회발전지수  $y$ 의 관계는 일차함수  $y = ax + b$ 로 표현되는데 이 일차함수와 그 계수들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
  - ①  $-2a + b = 2$
  - ②  $a^2 + b^2 = 8$
  - ③ 사회평등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0 \leq x \leq 1$ ). 사회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회는 더 평등하고, 그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는 더 불평등하다.
  - ④ 주어진 사회평등지수의 구간( $0 \leq x \leq 1$ )에서  $y$ 는 양의 값을 갖는다. 사회발전지수가 더 큰 값을 가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계수  $a$ 와  $b$ 를 갖는 일차함수를 구하시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 끝 > - 총 2장 3쪽입니다. -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사회 )계열 / ( 논제 I )문항

##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비교적 오랜 정당 정치의 역사를 갖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사한 특성의 정당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당 구성의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자당 등은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당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각국의 정당 체계의 구성이 다르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유사성과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립셋과 록칸은 균열(cleavage)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정당체계의 등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국가 공동체 내 균열 체계의 기원과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토대로 립셋과 록칸은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네 가지 균열의 형태를 제시했다. 이들이 주목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다. 국민혁명은 두 가지 균열을 초래했다. 하나는 중심부 대 주변부 간의 균열이었다. 국민국가의 성장은 영토 내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통일화와 표준화를 진전시키게 되어 그만큼 지방에 존재해 온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혁명에 의해 초래된 또 다른 균열은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었다. 국민국가 건설 이전까지 유럽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교회가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치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등장은 영토 내에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는 국왕이라는 세속적 권위, 세속적 권력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점차 증대된 부의 배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두 가지 균열을 만들어 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해를 둘러싼 균열이었다.

[나] 범죄와 처벌은 모든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의례의 기본적인 일부다. 의례란 집단이 수행하는 표준화된 예식적 행동임을 되새겨 보라. 여기에는 공통의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의례를 통해 사람들을 집단에 더 단단히 묶어놓는 상징적인 믿음이 만들어진다. ‘범죄-처벌’ 의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법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사회 구성원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는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 낸다. 범죄자는 이렇게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기계에 꼭 필요한 원료이지 그 기계의 혜택을 나눠 가지는 수혜자가 아니다. 범죄가 없다면 처벌 의례도 없을 것이다. 범죄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통으로 분노를 느낄 때 생겨나는 도덕 감정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다. 범죄와 처벌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사회를 묶어 주는 유대감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다] 영화 <설국 열차>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각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후 조절 물질을 살포하였는데 그 물질 때문에 지구에 빙하기가 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설국 열차 안뿐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탑승한 이 열차는 계급에 따라 객실이 나누어져 있어 앞쪽으로 갈수록 상류층이, 뒤쪽으로 갈수록 하류층이 생활하고 있다. 이 열차는 17년째 달리고 있는데 꼬리 칸에 타고 있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꼬리 칸 사람들과 함께 상류층이 탄 앞쪽 칸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설국 열차>는 지배 계급이 만든 구조 속에서 사는 피지배 계급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 피지배 계급은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 계급이 정한 구조 속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백질 블록만 먹으며 앞쪽 칸 사람들의 횡포를 그대로 받고 살아간다. 결국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라] 미국의 한 경제 정책 연구소가 미국의 매출 기준 350대 기업 CEO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올해 평균 1,550만 달러(약 17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봉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4.5%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2.2% 인상되었다. 이렇게 역할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 능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즉,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으며 각각의 일은 적절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보수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한다.

[마] 사회적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상과 정서와 관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인간성과 개인차의 중요성, 권리와 의무, 사회, 개인, 진보,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동질적인 국민정신의 기초가 되고 있다. 부유한 자의 교육이든, 가난한 자의 교육이든, 전문 직업 교육이든, 산업 기술 교육이든 상관없이 모든 교육은 위와 같은 공통 요소를 아동에게 심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집단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일성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영속시키고 동시에 강화한다.

[바]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는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옵셋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논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1]에서는 기능론 혹은 갈등론의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시문들을 응시생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1]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인 갈등론은 사회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집단은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피지배 집단은 이에 도전하므로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론은 갈등을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두 번째 관점인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공통의 도덕 감정, 유대감, 규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정당론』	강원택	박영사	2022	51-53	○
[나]	『사회학 본능』	랜들 콜린스 저, 김승욱 역	알마	2014	175-179	○
[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38	○
[라]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132-133	○
[마]	『교육과 사회학』	에밀 뒤르케임 저, 이종각 옮김	배영사	1978	69-70	○
[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 힘	2000	106-107	○

####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1>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문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바]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다],[바]는 갈등론(사회 갈등)에 해당되고, [나],[라],[마]는 기능론(사회 통합)에 해당된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다],[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라],[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가]-[바]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다],[바]는 갈등론(사회 갈등)에 해당되고, [나],[라],[마]는 기능론(사회 통합)에 해당된다.

[가]는 정당(체계)은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한 사회집단들 간의 갈등(균열)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는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착취를 통해 혜택을 받지만 피지배계급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바]는 공장에서의 승진, 작업수당,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지배를 묘사하고 있다.

[나]는 범죄와 처벌 의례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도덕 감정과 감정적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라]는 역할의 중요성과 수행 능력의 차이에 따라 회사 대표(CEO)와 근로자 간의 차등 대우가 발생하는 데 이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하여 하여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마]는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공통적인 사회적 가치, 규범, 정신을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577자)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사회 )계열 / ( 논제 Ⅱ )문항

##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을 사적으로 독점한 세력, 투기를 일삼는 세력, 분별없이 금융 자산을 굴리는 관행, 사익을 추구하는 계급적 파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자기 사업을 지원하는 한낱 조력자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본 위에 세워진 정부는 조직 폭력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언제나 싸울 것이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1997년 IMF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반지, 돌반지 등의 금붙이를 든 사람이 은행마다 줄을 섰다. 지역·계층을 넘어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금했고, 이 금으로 나라의 빚을 갚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자] 인간은 첫째, 이득을 위해 침략하고, 둘째, 안전을 위해서 공격하고, 셋째, 공명심 때문에 명예 수호를 위해 공격자가 된다. 또한 인간은 첫째, 타인과 가족, 가족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둘째,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셋째, 한 마디 말, 한 번의 웃음, 의견 차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친척, 벗, 민족, 직업, 가문을 얹잡아 보는 사소한 표현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

[논제 Ⅱ]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Ⅱ]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이 사회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시생으로 하여금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세 개의 추가 지문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서 각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II]는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사],[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제시문 [사]는 갈등론의 관점에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사회 불평등을 교정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이들과의 싸움(갈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기능론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갈등론의 관점에서 견제되지 않은 지배 집단의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기능론의 관점에서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자]는 인간 집단이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제시문 [자]는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갈등과 혼란의 상황으로 사회 통합과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19	202	○
[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86	○
[자]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최공용·최진원 역	동서문화사	1988	131	○

####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④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⑤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⑥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④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⑤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③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④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문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는 경제적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독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투기, 위협,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안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아]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유대와 신뢰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능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자]는 인간 집단은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지문은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자]는 사회적 투쟁, 폭력, 혼돈의 상태로 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사회가 투쟁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통합과 사회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아],[자]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가점

-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아],[자]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가점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I]

(1) [가],[다],[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개의 관점 중에서 나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가],[다],[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갈등과 대립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론은 사회적 강제, 억압, 착취, 부정의를 폭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경제적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독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투기, 위협, 관행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안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교정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이들과의 싸움(갈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는 지배 집단인 정부와 대기업의 잘못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국민들의 단결한 힘으로 극복한 사례를 설명한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사례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는 인간 집단은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지문은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652자)

**(2) [나], [라],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개의 관점 중에서 나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나],[라],[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사회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울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며 사회 발전과 안녕을 이루기 힘들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유대와 신뢰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능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자]는 사회적 폭력과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만연한 상황으로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회가 혼란과 투쟁의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사회 신뢰 확보)과 사회질서 유지(사회 규범 확립)가 필요하다. (635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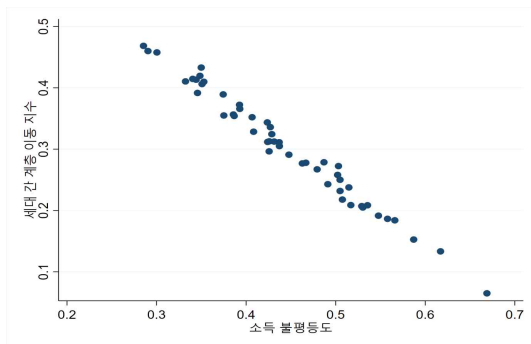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사회 )계열 / ( 논제 Ⅲ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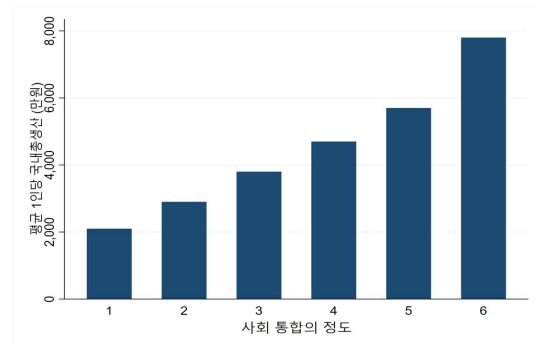
##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논제 Ⅲ]

<자료 1>은 각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조사한 후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계층 이동 지수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은 사회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료 2>는 국가들을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회 통합의 정도가 1에서 6으로 커질수록 더 통합적인 국가다.



<자료 1>



<자료 2>

(1)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각의 자료가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사회평등지수  $x$ 와 사회발전지수  $y$ 의 관계는 일차함수  $y = ax + b$ 로 표현되는데 이 일차함수와 그 계수들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

①  $-2a + b = 2$

②  $a^2 + b^2 = 8$

③ 사회평등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0 \leq x \leq 1$ ). 사회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회는 더 평등하고, 그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는 더 불평등하다.

④ 주어진 사회평등지수의 구간( $0 \leq x \leq 1$ )에서  $y$ 는 양의 값을 갖는다. 사회발전지수가 더 큰 값을 가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계수  $a$ 와  $b$ 를 갖는 일차함수를 구하시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Ⅲ]은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연립이차방정식을 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 Ⅲ]은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 통합과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자료 1>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소득의 이동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응시생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그림을 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갈등론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자료 2>는 사회 통합의 정도와 개인의 생산성의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출제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연립이차방정식 및 일차함수를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일차함수는 더 평등한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제시문 [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자료 1>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Miles Corak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82 그림 1	202	○

##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㉗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㉘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㉙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㉗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㉘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㉙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 <논제 Ⅲ>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㉗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㉘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 3)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㉗ <자료 1>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덜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것이 불평등은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이면 가점 10점.
- ㉘ <자료 2>에서 더 통합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서술하면 가점 10점.
- ㉙ 연립이차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차함수를 정확하게 도출하면 가점 10점.
- ㉚ 계산을 통해 도출된 일차함수가 사회평등지수가 높을수록 사회발전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점을 들어 제시문 [라]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 가점 10점.

##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 [문제 Ⅲ]

(1) <자료 1>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 불평등이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고 보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는 더 통합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생산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a$ 와  $b$ 는 조건①과 조건②를 만족하는 연립이차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조건①에서  $b = 2a + 2$ 이므로 이것을 조건②에 대입하면

$$a^2 + (2a + 2)^2 = 8 \text{이고, 이것을 정리하면}$$

$$5a^2 + 8a - 4 = 0 \text{이다.}$$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a + 2)(5a - 2) = 0$ 이다.

$$\text{따라서 } a = -2 \text{ 또는 } a = \frac{2}{5}$$

$$\text{이를 조건 ①에 대입하면 } b = -2 \text{ 또는 } b = \frac{14}{5}$$

$$\text{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 \begin{cases} a = \frac{2}{5} \\ b = \frac{14}{5} \end{cases} \text{ 또는 } \begin{cases} a = -2 \\ b = -2 \end{cases} \text{ 이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a = -2$ ,  $b = -2$ 인 경우 주어진 범위의  $x(0 \leq x \leq 1)$ 에 대해  $y$ 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조건④를 만족하지 않는다.

$$\text{따라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 a \text{와 } b \text{는 } \begin{cases} a = \frac{2}{5} \\ b = \frac{14}{5} \end{cases} \text{ 이고}$$

사회평등지수( $x$ )와 사회발전지수( $y$ )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차 함수는

$$y = \frac{2}{5}x + \frac{14}{5} \text{이다.}$$

제시문 [라]는 사회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평등지수와 사회발전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